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교육관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당회서기, 감사, 각 부서장, 선교회 총회장, 기관 대표자입니다.

1월 임원회 및 오늘 오후 집회는 구역회 관계로 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원천감리교회(화천)에서 열립니다.

십일조 및 월정헌금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속회나 선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기재된 봉투가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실 장로 (어머니 이매연 권사님 별세)

벌써 새해의 첫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의 결심을 되새겨 보십시오.

- * 식 당 봉 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전충길 조순덕
- * 1/30, 2/6 식당봉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윤숙 김성은 유영남
- * 설 거 지 봉 사 : 김종락 박영신 권혁신 (다음 주 : 이준하 노우중 강미선)
- * 새 교 우 : 이진영(6여) 이원호(5남) 황경희(7여) 박송이(7여)
노재욱(5남) 이지희(7여) 신자유(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3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가다듬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서운 한파에 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현실과 냉랭한 일상에 마음 시릴 때가 많은 우리였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선과 교만이 뒤섞인 만남, 경쟁과 강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리듬을 놓친 채 경직된 삶을 사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의 노래이신 주님, 평화의 춤이신 주님, 굳어진 우리의 몸을 풀어주십시오. 헛된 교만과 걱정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노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9,10 인도자

♣ 교 독 문 123. 주현절(3)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2(통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 성경봉독 I. 고전12:31b-13:13 이성경 선생

II. 삼하6:20-23 박혜경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가장 좋은 길 이성운전도사

II. 주를 찬미하나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이성운 박권동 김훈동 유경순 박대웅 심상숙 정현숙 임주빈 최현옥
한대훈 조현권 박아영 박병구 김정애 임 영 정경례 장대호 한숙경
무 명

월정헌금:

최철수 곽권희 선우영 이민범 김남홍 정현선 이인웅 오송경

감사헌금:

이은옥 송임희 백숙현 하재두 김남홍 무 명

녹색꿈 헌금:

장재영 박병구 김정애

생일감사헌금:

이은자 박시내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차영		
	김기석	이건식		

날아다니는 사슴

마중기

사자에게 쫓기다가 다리 물리고
 눈을 뜬 채 통째로 뜯어 먹히는
 사슴의 아픈 눈을 TV로 보다가
 사슴의 죽은 눈을 감겨주다가
 잠이 오지 않는 날은 밤이 환하고,

너른 평원에는 잔인한 짐승들 우쭐고
 사자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머리 치켜들고 날아오른다.
 사슴 한 식구가 공중에 날아오른다.
 날아라 사슴, 눈부신 가벼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죽인다는
 사나운 세상의 공식을 넘어서 살아라.
 날아가 버려라, 오늘날의 사슴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땅에도
 고운 꽃 피는 이유를 왜 모르겠느냐,
 날아다니는 사슴의 눈물 고인 길 따라
 나는 너무 먼 곳을 돌아왔을 뿐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445(통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다함께 :	아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한껏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가락을 따라 노래하듯, 춤추듯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요한계시록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박범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박경선 집사 서정순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김금순 최현옥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새끼를 꼬면서

요즈음 시골에는 새끼 꼬는 사람이 없다. 가마니 짤 일도 없고, 삼태기니 명석 짤 일도 없고, 지붕에 이엉 엮을 일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 밖에 이것저것 묶는 데는 비를 맞거나 땅속에 묻어도 썩을 염려가 없는 가볍고 튼튼한 비닐끈이 있다. 지퍼 달린 비닐포대, 명석 열 개보다 더 넓으면서도 한 손으로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비닐깎개, 가볍고 튼튼한 비닐삼태기.....

이맘때면 동네 사랑방에 호롱불을 밝히고 모여 앉아 손바닥이 닳도록 새끼를 꼬면서 밤늦게까지 정담을 나누던 마을 어른들은 이제 모두 환한 형광등 아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연속극 줄거리를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다.

싸릿대에 썬 곳감을 걸러고 새끼를 꼬았다. 새끼를 꼬려면 먼저 벗짚을 잘 골라야 한다. 콤파인으로 벤 짚은 기계 속에 들어가 한 번 몸살을 앓아서 벗짚으로는 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우리는 낫으로 벼를 베었다. 요 몇 년 사이에 낫으로 벼를 베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하기가야 200평 한 마지기 벼를 콤파인으로 베어 자동으로 탈곡까지 해서 포대에 담아주는 데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내면 되니, 하루 꼬박 장정이 낫으로 베도 200평을 베어 묶기 힘든 고생을 누가 사서 하랴. ...

이렇게 낫으로 베었다 해서 모두 새끼 꼬기에 알맞은 벗짚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은 것으로 키가 큰 것, 대가 실한 것을 골라야 한다. 고르고 나서도 할 일이 많다. 벼가 달려 있던 모가지 부분을 한 움큼 쥐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을 갈퀴처럼 벌리고 구부려 북태기를 거꾸로 벗겨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벗짚에 쓸려 얼얼하다가 나중에는 피가 맺힌다. 농사꾼들 손이 갈퀴처럼 거칠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살과 웅이가 박히는 까닭을 알겠다.

북태기가 벗겨지고 심만 남은 벗짚으로 새끼를 꼰다. 알맞은 굵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하나의 크기가 1미터 남짓한 벗짚들을 알맞을 때 알맞은 곳에 끼워 넣어 하나의 긴 새끼줄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여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잘못하면 새끼가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 하여 펠감 묶는 데나 쓰일까 다른 데는 쓸모없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 끼워 넣은 벗짚 자리가 약해서 조금만 힘을 써도 끊어지기 일쑤이다.

어린 시절에 익힌 뒤로 마흔 해가 넘게 꼬아보지 않던 새끼를 꼬면서 머릿

속에 오가는 생각이 많다. 차라리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걸어서 오가는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들여서라도 비닐끈을 사다가 아랫집 할아버지처럼 간단하게 꿰어 걸었더라면.....

이런저런 생각에 휩쓸리며 두 손을 비비고 있노라니 그래도 새끼줄은 한 뼘 한 뼘 길어져 간다. 그리고 처음에는 굵었다 가늘었다 마치 쇠무릎처럼 가관이던 새끼줄이 차츰차츰 고르게 꼬여간다. 그리고 처음에는 흩어지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제법 새끼줄 이어지듯이 개똥철학도 새끼줄 갈피에 섞여서 한데 이어진다.

지금은 지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새끼 꼬기는 농사일의 기본 가운데 하나였다. 이 기본이 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밭에 신는 짚신, 비 오는 날 몸에 걸치는 도롱이, 곡식을 넣어 말리고 때로는 방바닥에 장판 대신 까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명석, 곡식을 담아 보관하는 망태나 가마니, 지붕을 이거나 울바자를 두르는 데 쓰이는 새끼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문간에 내거는 새끼줄이나 초상났을 때 허리띠 대신 허리에 묶는 삼베 새끼에 이르기까지 새끼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처럼 농사일과 삶에 기본이 되는 새끼줄은 저마다 굵기와 길이가 달랐다. 그러나 저마다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엮어서 한 줄로 잇는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사랑방에 한데 모여 호롱불을 가운데 두고 둥그렇게 앉아 새끼를 꼬던 우리네 어른들은 그사이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나 서로 다른 개인들이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는 방식도 새끼줄을 꼬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지나 않았을까? 쓰임새에 따라 가는 새끼, 굵은 새끼, 긴 새끼, 짧은 새끼를 꼬듯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이와 어른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어떤 끈으로 어떻게 묶여 하나가 될지를 가늠하여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의 새끼줄을 꼬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여 마을 공동체라는 평화롭고 수천 년 지속 가능한 삶의 세계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값싸다, 편리하다 하여 공장에서 기계로 낀 비닐끈을 사다 쓰려고 길을 나서는 순간 혹시 우리는 이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기계화하는 것이나 아닐까?

새끼를 다 꼬았다. 시간은 한 시간 남짓. 면사무소 소재지를 오가는 데 걸린 시간이다. 싸릿대에 썬 곳감을 그 새끼줄에 걸어 처마 밑에 매달았다. 곳감과 싸릿대와 새끼줄,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늦가을의 하늘빛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운지.